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8-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震怒)>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죄(罪)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不義)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感謝)와 예배(禮拜)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罪)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에 들어왔는데요. 2장의 중요 포인트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들(基準)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법에 대한 전문가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법을 연구(研究)하고 그 법의 논리를 적용하여, 법의 정신을 실현합니다.

의회(議會)는 그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법부는 그 법을 집행합니다.

검사(檢事)들은 법(法)을 따라 죄를 규정하려고 하고, 변호사(辯護士)들은 같은 법(法)에 따라 피의자들을 보호하려고하고, 판사(判事)들은 법(法)에 따라 판결합니다. 이 법 전문가집단들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나쁜 감정이 있어서, 세상을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글성경은, 이 법을 율법(律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율법’이 ‘Law’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法)을 연구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판에 대처(對處)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는 게 있습니다. 죄는 법에 의해 정해진 것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니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성경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접할 때, 진지(眞摯)하고 진중(鎭重)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겁(怯) 먹거나, 예단(豫斷)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율법(律法)을 등한시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아 그건, 율법시대(律法時代)의 법(法) 문제야,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지!>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말씀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完成)하려 오신 것이지 그것을 폐기(廢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2.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말씀을 단아버리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수 없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생겨 성경을 읽다가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짐이됨으로인해 즐겁지 않기에 말씀을 스스로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危險)한 일입니다.

여기에 복음(福音)의 묘미(妙味)가 있는 데, 앞으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 여기에 또 하나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자세야 말로, 가장 악(惡)한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提起)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법의 한계점(限界點)과 이중성(二重性)을 제시해줌으로 세상을 고발하면서, 독자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이점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명제(命題)입니다.

*** 본문은 ‘남을 판단(判斷)하는 사람’의 위험성(危險性)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롬 2:1)**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自身)을 먼저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설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없이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독을 먹는 일입니다. 본문은 그것이야 말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벌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즘용어로 하면 가중처벌(加重處罰)을 받게 될 사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일 + 정죄하는 일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중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도 벽 차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진지(眞摯)하게 돌아본다면, 남을 판단하는 우스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입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성서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보편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마태23장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外飾)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태23:25-27)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地獄)의 판결(判決)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새의 아들 사가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 23:33-35)

이 말씀을 오늘 날에 대입해보면, 법(法)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들도 이 법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들도 이 법 앞에서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서 양심을 팔고, 진리를 막고 호도(糊塗)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고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행하면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잘생긴 기교의 설교기술자(說敎技術者)들은 많습니다. 자신도 감동받지 않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득(說得)하지만, 자신도 지키지 않는 말씀들을, 지키는 듯 전하는 설교자들이 안 되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이것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설교함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더욱 인식하여, 더 정직하게, 남작 없드려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비판에 우리가 합당한 자인지 항상 우리는 물어보고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제 오늘의 핵심주제인 하나님의 심판의 4가지 기준(4대원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I. 진리(眞理)대로 된다.(롬 2:2-3)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3)

이 구절에서 핵심은 진리(眞理)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의 신분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판단하는 자의 신분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身分)이 아니라, 진리(眞理)에 의해, 모든 사람은 공평(公平)한 판단(判斷)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묻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眞理)가 무엇이나?는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18:36-38)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씨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眞理)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眞理)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眞理)가 무엇이나** 하더라.

*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이 <진리(眞理)의 왕(王)>이라는 주장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진리(眞理)라는 말이 5절에서 등장합니다.

로마서 1:25절에서는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사실이 진리>라고 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으로 25절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2:8절에선, 진리는 <따라야 할 진리>이며,

로마서 2:20절에선 그것은 율법(律法)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模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에선, 규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법인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법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眞理)의 근원(根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자체(眞理自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眞理)이며, 그의 말씀이, 진리(眞理)이자 판단근거(判斷根據)라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시편 119: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II.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후에 나타난다.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

사도는 심판의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심판기준(審判基準)이라기보다

심판과정(審判科程)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즉결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의 심판을 지연(遲延)과 연기(延期)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극대화(極大化)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는 또 롬9:22-23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증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豫想)을 하지 못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야말로, 가히,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祕密)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는 데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더 왜곡되고 무시되고 멸시된다는 것이야말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런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합시다.

III. 하나님의 최후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힐 날이 옵니다. 사도는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노의 날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올바름, 정의(正義)를** 말합니다. **공평타당(公平妥當)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어느민족에게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3 “**가난한 자의 송사(訟事)라고 해서, 편벽(偏辟)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富者)의 송사>가 아닌 <가난한 자의 송사>라니.. 인간성의 본질(本質)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반드시 정의(正義)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부자가 좋아하겠네요? 그럴까요? 그들도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에 겸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구약에 기원전 9세기 유다왕국의 4대왕(王)인 여호사밧이 종교개혁(宗教改革)을 일으키며 재판관(裁判官)들을 세웁니다. 그 때 한 말이, 역대하 19:4-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전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달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憂慮)가 이 혼란의 세상에서는 가득합니다. 거짓증인과 거짓변호인과 거짓재판관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어서, 유전무죄(由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전지(全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편벽(偏僻)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편벽(偏僻)이란, 치우칠 편(偏), 후미질 벽(僻)으로, 외롭게 자라서 견문이 좁고 한쪽으로만 치우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아첨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첨(阿諛)과 형식적인 예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3장에 나오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3:25-27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지지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지킬 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 이 부분은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원리를 봅시다. 1) 진리(眞理)대로 2)하나님의 인내(忍耐)를 통해 3) 하나님의 의(義)로우심을 따른 심판, 이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진,인,의** (眞忍義)에 따른 심판입니다.

VI.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行)한대로 심판하신다.(롬 2:6-11)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報應)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永生)으로 하시고
8.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怒)와 분(憤)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福音)의 메시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내심 불만(不滿)인 것입니다.

<나는 평생 참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참고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과가 다 똑같다고 >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15:29-30)라고 말하는 심정이지요.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의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을 행하는 게 본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과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교회인데 주님은 에베소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네 행위(行爲)와 수고(愁苦)와 네 인내(忍耐)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인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한숨과 눈물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말씀 6절부터 계속됩니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報應)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永生)으로 하시고, 8.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怒)와 분(憤)으로 하시리라. 이 구절은 비교법을 사용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永生)을 주실 것이지만>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는> 영생(永生)은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怒)와 분(憤)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9-1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外貌)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서 외모는 국적(國籍), 신분(身分), 직업(職業) 등을 포괄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이스라엘민족이라는 ‘선민사상(選民思想)’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땅에서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졌던지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개인의 개별적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판이 없는 경기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세상이 바로 그런 난장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이 계셔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보아도 합리보다는 불합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무의미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당위론을 외친 것입니다. 심판의 주제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세상의 심판자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인,의 (眞忍義)의 심판을 생각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의문(疑問)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때가 올 것을 인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平靜)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되, 인자하심에 의해 풀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은 완전한 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방향을 따라 나가되,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를 낙심하게 할 온갖 간난(艱難)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로 다시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만 불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 이시간,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